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3호 [루게 제24351호] 주체102(2013)년 10월 30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의 사격경기대회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의 사격경기대회를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룡해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리영길동지,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장정남동지를 비롯한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과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이 경기를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사격경기대회를 지도하시기 위해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고 매일이라도 보고싶은 미더운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군의 모든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건군사에 일찌기 없었던 사격경기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경기대회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준비되어있어도 사격을 잘하지 못하면 맡겨진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중대장, 중대

정치지도원들이 총을 잘 쏘야 군인들을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키울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군에 명사수, 명포수 운동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하여 이번 사격경기대회를 조직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사격경기를 시작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사격경기는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속에서 선발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제정된 거리와 시간에 목표를 쏘아 맞힌 점수를 가지고 군중, 군단급, 개인별등수를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경기에 참가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은 평시에 편마한 사격술을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목표를 정확히 명중하여 높은 점수를 맞을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보내주시였다.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의속에 진행된 사격경기에서는 조선인민군 제233군부대, 제604군부대가 1등, 조선인민군 해군, 조선인민군 제287군부대, 제318군부대가 2등,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 제569군부대가 3등을 쟁취하였다.

2 번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 4 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의 사격경기대회를 지도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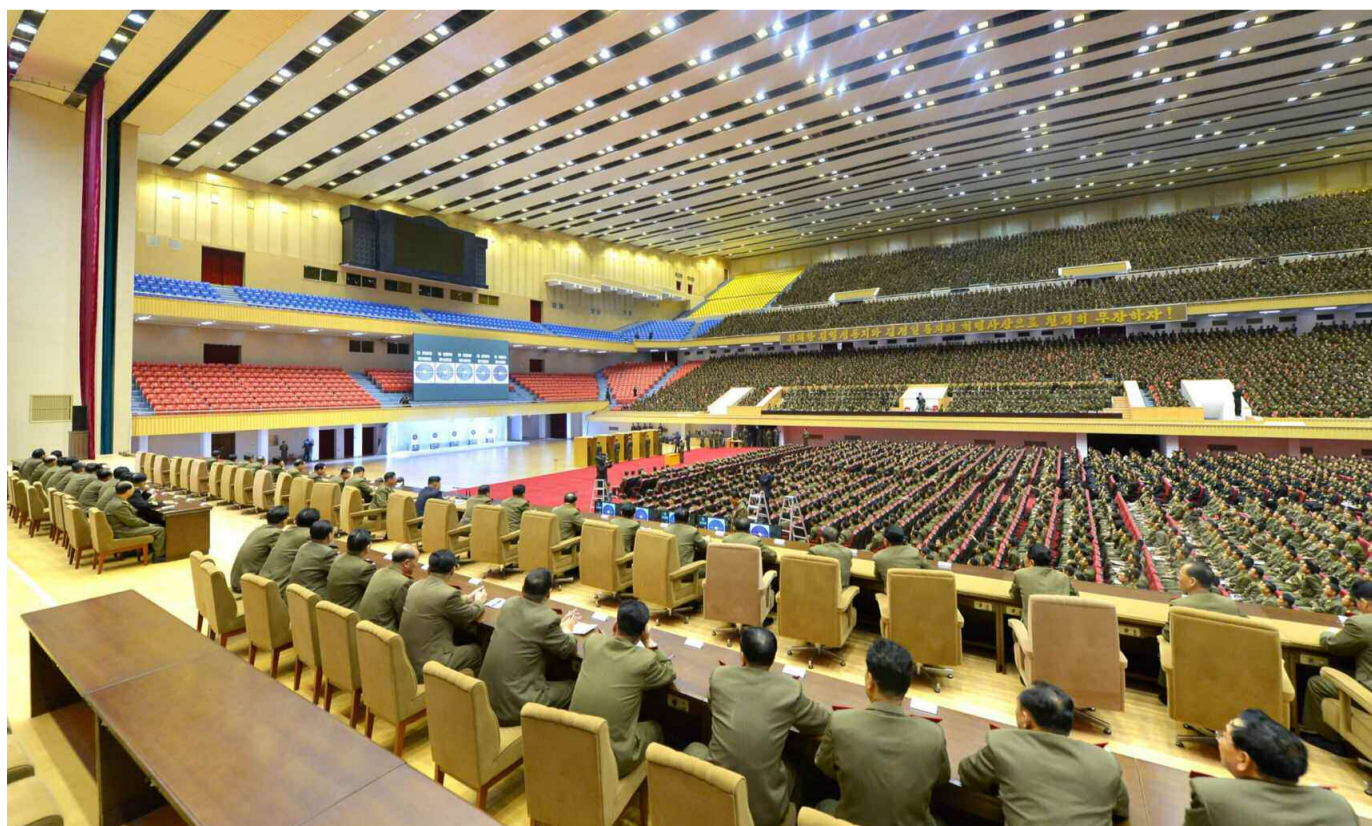
개인별 등수에서는 조선인민군 제 380 군부대관하 중대정치지도원 리영철, 제 604 군부대관하 중대정치지도원 강은철, 중대장 박인숙동무들이 1 등, 조선인민군 제 488 군부대관하 중대장 리상철동무가 2 등, 조선인민군 제 313 군부대관하 중대정치지도원 전영걸, 제 233 군부대관하 중대장 리광혁, 제 549 군부대관하 중대장 승명심, 제 593 군부대관하 중대장 김광현, 제 287 군부대관하 중대장 한옥주동무들이 3 등으로 평가되였다.

경매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오늘

진행한 사격경기대회를 통하여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자신들부터가 명사수가 되어야 모든 군인들을 명사수, 명포수로 키울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였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사격훈련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군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함으로써 사격경기대회에서 올린 총성을 최후승리의 축포성으로 이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인민군 제36차 군무자예술축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의 종합공연 진행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 관람

조선인민군 제36차 군무자예술축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의 종합공연이 28일과 29일에 진행되었다.

크나큰 영광과 격정속에 평양 참판의 나날을 보내고있는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

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이 종합 공연을 관람하였다.

장내는 정적적대가 뚜렷하고 혁명적군정신이 맥박치는 종 목들을 펼쳐보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높은 평가를 받은 중대군인들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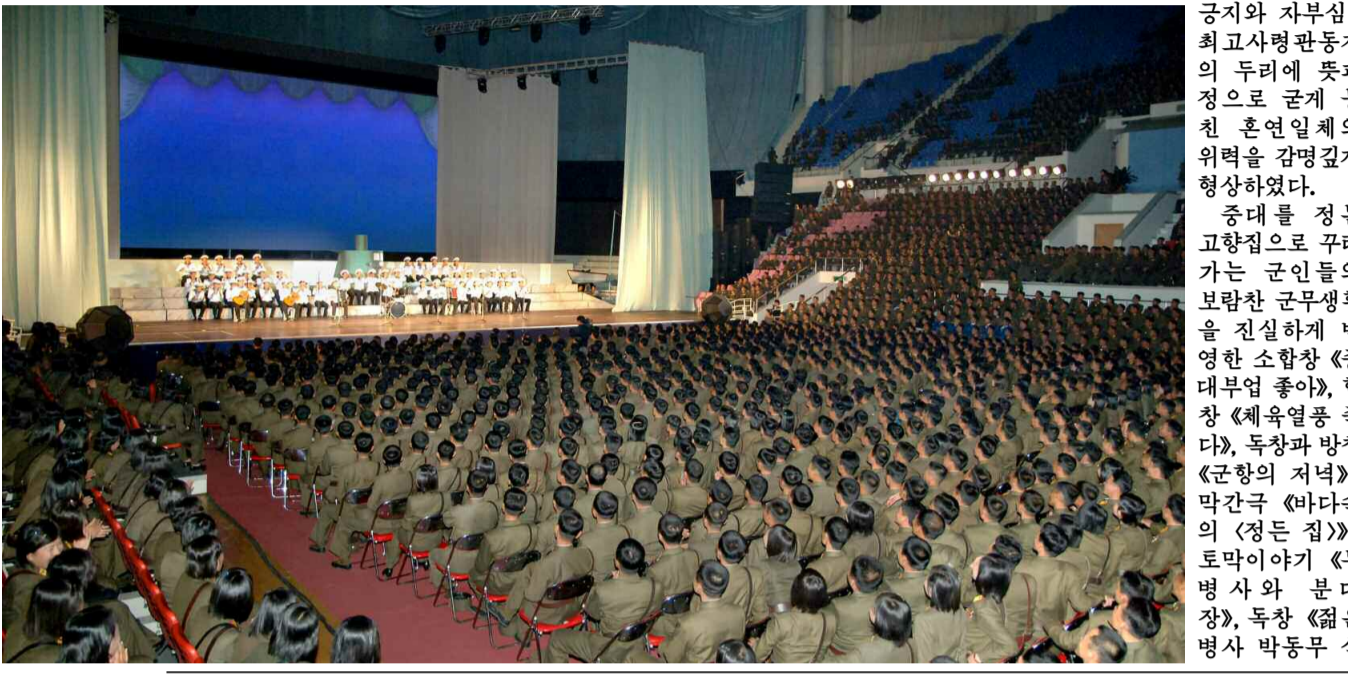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의 기쁨으로 설레고있었다.

무대에는 독창과 합창 《조국 찬가》, 대하시 《영원한 삶의 품》, 실화 《장군님의 마음안고 왔습니다》, 극중창 《사회주의 지키세》, 기악과 노래 《단순

에》, 토막이야기 《위험한 (지 피)》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나왔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슬하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새로운 전성기를 빛내여가는 일당백초병들의 긍지와 자부심,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뜻과 정으로 굳게 뭉친 혼연일체의 위력을 감명깊게 형성하였다.

중대를 정든 고향집으로 꾸려가는 군인들의 보람찬 근무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소합창 《중대부업 좋아》, 합창 《세속영광 좋다》, 독창과 방창 《군항의 저녁》, 막간극 《마다속의 <꿈은 집>》, 토막이야기 《두 병사 와 분대장》, 독창 《젊은 병사 박동무 식



제24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개막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온 나라 과학자, 기술자들이 최첨단을 돌파하며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개발한 1200여건의 프로그램이 출품되었다.

전시회장에는 석탄, 전력, 금속공업, 철도운수, 농업, 경공업 등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내놓은 공정조종프로그램들, 장치, 요소들이 전시되었다.

체육강국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체육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다.

성, 중앙기관들, 공장, 기업소들에서 정보화수준을 높인 성과자료들, 대학, 전문학교들과 콤포

퓨터수제양성기지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제출한 프로그램들도 있다.

조작체계 및 보안분야, 인공지능 및 조선어정보처리분야를 비롯한 18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는 경연 및 전시회에서는 영-조, 중-조기계면역 프로그램, 체육경기모의분석프로그램 경연 등이 벌어지게 된다.

개막식이 29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 김제성 전자공업상, 관계부문 일군들, 프로그램개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최상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조선로선에 따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첨단과학기술이 힘있게 벌어지고 가차없는 프로그램들이 널리 개발되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번 경연 및 전시회가 프로그램기술을 발전시키며 지난 기간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서로 나누고 강성국

을 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 여자경기 결속

런일 치렬하게 벌어진 공화국 선수권대회 축구1급 여자경기가 전부 끝났다.

봉화산림과 봉화산림, 철미도립과 평양팀사이의 경기가 29일 룡양인민체육공원에서 진행되었다.

봉화산림과의 경기에서 만경봉팀이 전반전 34분경 중장거리차이팅으로 먼저 멋있게 환골을 넣었다.

만경봉팀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드센 공격을 이어가며 후반전 15분과 20분경에 연속 득점

6:0으로 눌렀다.

결과 축구1급 여자경기에서는 4.25팀이 1등을, 압록강팀과 묘향산팀이 2등과 3등을 차지하였다.

김일성경기장에서는 29일 우수한 남, 녀팀들과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관중들이 깊은 인상을 남긴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남, 녀)경기 전례없는 온 사회에 체육열풍을 태우고 나라의 축구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파수업부분 근로자들은 우리



공화국선수권대회 30여개 종목의 경기들이 끝났다

공화국선수권대회 30여개 종목의 경기들이 29일까지 끝났다.

경기들에서 선수들과 감독들은 배우의 훈련열풍을 세게 일으키며 평안한 높은 체육기술과 집단주의정신, 완강한 투지를 발휘함으로써 나라의 체육기술발전이 기여하였다.

배구경기가 29일에 결속되었다.

남자배구경기에서는 팀의 육체기술특성을 잘 살린 압록강체육단이 우승을, 4.25체육단, 소백체육단들이 2위와 3위를 하였으며 여자배구경기에서는 4.25체육단이 1등을, 소백체육단, 평양체육단이 2등과 3등을 차지하였다.

용구경기에서는 먼저러려넘겨기와 판공파기, 플립투사에서 우

세를 보인 4.25체육단 남자, 녀자선수들이 각각 첫지리를 차지하였으며 압록강체육단, 기관차체육단 남자, 녀자선수들이 각각 2위와 3위를 하였다.

4.25체육단 선수들이 탁구경기 남녀단체전에서 모두 우승하였으며 압록강체육단 남자, 녀자선수들이 각각 2등을, 평양체육단 남자선수들이 3등을 차지하였다.

력기경기(단체)에서는 기관차체육단(남자), 4.25체육단(녀자)이 1위를, 4.25체육단(남자), 평양체육단(녀자)이 2위를, 압록강체육단(남자, 녀자)이 각각 3위를 차지하였다.

압록강체육단(남자, 녀자)이 모두 우승한 율술경기(단체)에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밀로슈 제민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세계 각국사이의 친선협조관계 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체스 외교 공화국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

우리 나라와 체스외교사의 외교관계 설정 65돐과 국경절에 즈음하여 주조 체스공화국대사관에서 29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박명국 외무성 부상, 오봉철 무역성 부상, 서호원

대의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사와, 국제기구대표들이 초대되었다.

두산 슈프라우호 주조 체스코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직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과맛 품평회 진행

현대적인 파일생산기지로 꾸려진 각지의 파수농장들에서 올해 생산된 사과들에 대한 맛 품평회가 29일 평양농민경기장에서 있었다.

우리 인민에게 맛있고 신선한 파일을 더 많이 먹이시려고 마음 써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정춘파원으로 전변된 파수농장들사이에서 사과맛경쟁을 조직하여 생산자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도록 하시었다.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6월 고산파수농장을 찾으신고 선군혁명명도의 상징인 철령아메에 펼쳐진 대규모 파수원에서 파일생산을 높이기 위한 파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파수업부분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송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수확하고 높은 좋은 품질의 파일나무를 많이 심는 한편 배배판리를 주체농민의 요구대로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대중과수종합농장과 파일군의 파수농장들, 고산, 풍진, 덕성파수농장들에서 30여종의 사과맛품들이 품평회에 출품되었다.

품평회에서는 사과맛품별로 단맛과 신맛, 향기, 수분, 균기를 균중심사의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품평회참가자들은 인민들에게 맛있는 파일을 더 많이 가져주려는 우리 당의 의정을 가슴 뜨겁게 절감하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맡은 본분을 다해 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2013년 세계 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블스카의 브로프와브에서 진행된 2013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29일 귀국하였다.

세계 59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선수들 310여명이 참가한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높은 기술과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국제경기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엄윤철 선수는 남자력기 56kg급에서 1위, 팔이올리기 2위를 하고 종합 1등으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차지하였다.

남자력기 62kg급에서 출전한 김은국 선수는 팔이올리기 종목에서 1위를 하고 종합 2등으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받았다.

황준하, 조복향 선수들은 녀자력기 48kg급과 63kg급에서 팔이올리기와 추켜올리기, 종합에서 2위를 하여 각각 은메달 3

금야군 비단협동농장 당서 포 비서 김성호 등 무

김성호동무는 금야군 비단리에서도 제일 막바진인 덕재골이라는 곳에 살고있었다.

우리가 그의 집을 찾았을 때 불밝은 창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밝고 명랑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법이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어쩔수 없었다. 그 애들은 김성호, 민복실 부부가 데려다 키우는 아이들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당서포들은 우리 당의 인민정치, 광복정치를 받들어 군중과의 사업을 잘함으로써 우리 당이 심심산골에 홀로 있어도 로동당탄생을 부르게 하여야 합니다.》

게을름소리가 소연한 산기슭도로에 네사람이 서있었다. 금야군 비단협동농장 제6작업반 당서포비서인 김성호동무와 인민군관, 두명의 아이들이었다.

《대장동무, 어찌면 이렇습니까.》

김성호동무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하여 저기 떨려

비단협동농장 제6작업반 김성호 등 무

주인가?)

김성호동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애들은 우리 동지가 낳고 간 작업반의 자식들입니다. 롱병병사도 우리 작업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누구도 아닌 작업반당서포비서인 내가 롱병병사 형제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인민군관들은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앞에는 농촌 마을의 평범한 당서포비서의 모습이 병사들의 친부모가 되어 조국의 후방을 믿음직하게 지키고있는 수천수만의 훌륭한 인민들의 모습으로 떠올랐다.

대장장은 김성호동무의 손을 꼭 그럭거렸다. 병사들의 지휘관으로서, 자식을 둔 아버지로써 감사의 인사를 하려 했으나 목이 딱 메여 좀처럼 말이 나가지 않았다.

이윽고 김성호동무는 아이들을 향해 두팔을 벌렸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되어 김성호, 민복실 부부는 인민군병서 강용방의 동생들인 강용남, 강은덕 학생들에게 혈육의 정을 안겨주려고 찾은 사람이 어찌 초소의 군관뿐이라.

주변마을에서 사는 일가친척들도 교원들도 어린것들을 품어안았다고 매일이내시어 제6작업반마을을 찾아왔다. 하지만 김성호동무는 매년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우리는 김성호동무가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으며 어떤 결심을 다졌는지 구애어 묻지 않았다.

그때 그는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어서게 내세워주는 품, 이 어머니 우리 당의 품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었고 그 뜻을 앞장서 받드는 참된 당서포비서로 살 결심을 다졌을 것이다.

김성호, 민복실동무들은 롱병이와 은덕이에게 친부모의 정을 기울였다. 새 옷과 학용품도 안겨주었고 그들이 잃을세라 보아도 마련해 먹여었다.

그들부부에게는 군사복무를 하는 아들과 함께 전문학교를 갓 졸업한 딸이 있었다.

얼마전에 그 딸이 어느 한 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나갔다.

《딸애는 떠나면서 자기의 마음도 합쳐 롱병이와 은덕이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친딸이 곁에 있으면 롱병이, 은덕이한테도 쏠려야 할 것이 자기에게 쏠릴수도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김성호동무가 한 말이다. 우리는 그의 말에서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느낄 수 있었다. 김성호동무의 가정은 이렇게 한 병사를 위해, 먼 저 간 공지를 위해 정열을 바치고있었다.

결코 그들부부만 정은 깊지 아니었다. 군당위원회의 일군들과 비단협동농장을 비롯한 리안의 일군들의 사심없는 방조는 김성호부부에게 커다란 고무격려로 되고있다. 함께 웃는 롱병이와 은덕이의 웃음속에는 사회와 집단, 혁명동지를 위해, 후대들을 위해, 조국보위를 위해 바치는 이런 뜨거운 정과 사랑이 흐르고있다.

우리는 한 병사의 나 어린 동생들의 웃음속에서 조국의 천리방신을 지켜진 병사들의 밝은 얼굴을 그려볼수 있었고 우리 사회 인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서 기르던 충직한 패자를 직장에 내와 종업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가정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한 종업원을 위해 남모르게 밥값도 많이 절렀다는 것이었다.

하기에 직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김학문동무를 가리켜 《우리 검사동지!》라고 정답아 부르며 따르다는 것이었다.

초급당일군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의 눈앞에는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청정광 충산을 위한 투쟁에 성실한 힘을 다 바쳐가고있는 한 경찰 일군의 모습이 선히 보이는 것만 같았다.

특파기자 리은남

《그들은 작업반의 자식들입니다》

김성호동무는 금야군 비단리에서도 제일 막바진인 덕재골이라는 곳에 살고있었다.

우리가 그의 집을 찾았을 때 불밝은 창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밝고 명랑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법이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어쩔수 없었다. 그 애들은 김성호, 민복실 부부가 데려다 키우는 아이들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당서포들은 우리 당의 인민정치, 광복정치를 받들어 군중과의 사업을 잘함으로써 우리 당이 심심산골에 홀로 있어도 로동당탄생을 부르게 하여야 합니다.》

게을름소리가 소연한 산기슭도로에 네사람이 서있었다. 금야군 비단협동농장 제6작업반 당서포비서인 김성호동무와 인민군관, 두명의 아이들이었다.

《대장동무, 어찌면 이렇습니까.》

김성호동무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하여 저기 떨려

정 다 운 부 름

무산광산협합기업소 수송직장 일군이 날동안 뛰여다녔지만 그 럼이 많지 못하였다.

그러한 때에 땀 젖은 한사람이 손수레를 끌고 기업소구내로 들어섰다. 함경북도관찰소 책임검사 김학문동무였다. 손수레에는 자기들이 그처럼 찾았던 레우이음판이 가득 실려있었다.

그것을 본 초급당일군은 탄성을 울리며 《이리, 이 귀한걸이 디서 이렇게 많이 구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 물음에 책임검사가 웃음을 지어보이며 한마디 하였다. 《이달수송계획이 이 레우이음판에 달려있다는 말을 듣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방도가 나지더 말입니다. 내 철길을 따라가며 타산해보았는데 이만 한 럼이면 될것입니다.》

그 말에 초급당일군은 물론 직장동무들의 가슴은 뭉클해졌다. 초급당일군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암송기가 고장났을 때에는 출장지에서 그 사실을 알고 출원한 부속품을 해결해오고 기관차

가 멈추었다는 것을 알고는 수백리길을 달려가 배아령을 구해 주던 때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직장에서 목욕탕을 새로 꾸릴 때에는 건설에 필요한 자재도 스스로 맡아 해결해주었고 난간계획수행을 위한 총동원력이 벌어질 때에는 집에서 기르던 충직한 패자를 직장에 내와 종업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가정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한 종업원을 위해 남모르게 밥값도 많이 절렀다는 것이었다.

하기에 직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김학문동무를 가리켜 《우리 검사동지!》라고 정답아 부르며 따르다는 것이었다.

초급당일군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의 눈앞에는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청정광 충산을 위한 투쟁에 성실한 힘을 다 바쳐가고있는 한 경찰 일군의 모습이 선히 보이는 것만 같았다.

특파기자 리은남

매 히꼬, 브라질 방문 조선로동당 대표단 출발

매히꼬를 방문하며 브라질의 쌀 싸움에서 진행되는 브라질공산당 제13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막군광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29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전송하였다.

브라질에 가는 조선민주 녀성동맹대표단 출발

브라질에서 진행되는 국제민주녀성평등회와 국제로동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춘회 녀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

난알렐기 전투에서 혁신 안악군 신촌협동농장에서

안악군 신촌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마련한 난알렐기전투에서 련일농장을 일으켰고있다.

농장일군들은 공정별작업조직을 만들었으며 난알렐기실적이 높이 오르게 하고있다.

이들은 가을걷이와 난알렐기일정계획을 포진법, 남자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작업반, 분조들에서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해나가고 있다.

특히 모든 농장원들이 끈질기게 노력하며 난알렐기실적을 높이고 있다. 그들은 주인공 자각을 안고 펼쳐나 공정별작업을 질적으로 해체하고있다.

제12작업반에서는 벼단운반, 난알렐기 등 가을걷이공정별일정계획을 치자처럼 맞물려

세우고 그것을 무조건 수행하고 있다.

특히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은 책임성을 안고 벼단먹이기로부터 난알렐기에서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간지하게 하고있다.

제4작업반의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도 벼단을 옮기는 과정에 흘린 땀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난알렐기를 질적으로 하고있다.

로동농원 렬 창성

매 히꼬, 브라질 방문 조선로동당 대표단 출발

매히꼬를 방문하며 브라질의 쌀 싸움에서 진행되는 브라질공산당 제13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막군광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29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전송하였다.

브라질에 가는 조선민주 녀성동맹대표단 출발

브라질에서 진행되는 국제민주녀성평등회와 국제로동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춘회 녀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



↑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한 엄윤철, 김은국선수들
→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우리 선수들

매 히꼬, 브라질 방문 조선로동당 대표단 출발

매히꼬를 방문하며 브라질의 쌀 싸움에서 진행되는 브라질공산당 제13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막군광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29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전송하였다.

브라질에 가는 조선민주 녀성동맹대표단 출발

브라질에서 진행되는 국제민주녀성평등회와 국제로동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춘회 녀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

난알렐기 전투에서 혁신 안악군 신촌협동농장에서

안악군 신촌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마련한 난알렐기전투에서 련일농장을 일으켰고있다.

농장일군들은 공정별작업조직을 만들었으며 난알렐기실적이 높이 오르게 하고있다.

이들은 가을걷이와 난알렐기일정계획을 포진법, 남자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작업반, 분조들에서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해나가고 있다.

특히 모든 농장원들이 끈질기게 노력하며 난알렐기실적을 높이고 있다. 그들은 주인공 자각을 안고 펼쳐나 공정별작업을 질적으로 해체하고있다.

제12작업반에서는 벼단운반, 난알렐기 등 가을걷이공정별일정계획을 치자처럼 맞물려

상처 입은 가슴에 칼질하지 말라

세상에 일본처럼 과거죄악을 지독하게 부정하는 나라는 없다. 야스쿠니신자 참배문제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최근 일본 도쿄에서는 가을철대례라는 명목에 159명에 달하는 국외의 인물이 집단적으로 야스쿠니신자에 몰려가 참배하는 놀음을 벌였다. 인류광심은 일본정치가들에게 아시아인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야스쿠니신자 참배를 하지 말라 대대히 한두번만 충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정객들은 올해에도 여러차례나 집단참배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집단 참배를 부추기는 장본인이 바로 일본 집권자라는 데 있다. 물론 그는 일본 참배에 얼굴을 내밀지 않고 야스쿠니신자 자기의 명패를 붙인 나무를 제물로 바친다. 겉으로는 야스쿠니신자참배에 대한 세계적인 항의규탄을 모면하고 내적으로는 일본정객들의 참배부위를 부채질하는 것이 집권자의 유희한 기도이다.

그는 야스쿠니신자에 제물을 바치는 것도 야스쿠니신자가 직접 일주일에 참배하러 하고 있다. 일본고위당국자의 야스쿠니신자참배시도는 피로 얼룩진 지난날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특권전범자들을 영웅으로, 《애국자》로 내세우며 일본인들이 그들을 본따 제정전정의

길에 나서게 하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일본집권자가 기도가 있을 때마다 야스쿠니신자참배는 내정문제라니, 나라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분들에게 존경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니 뭐니 하는 망발을 서슴없이 늘어놓고 있는 것은 그와 관련된다.

야스쿠니신자가 어떤 곳인가. 지난날 아시아인을 정복하기 위한 침략전쟁에서 악명을 떨친 도쿄 히메기와 같은 특권 전범자들의 위패와 명부가 있는 곳이다. 때문에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인민들은 야스쿠니신자란 말만 들어도 분노 치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정벌을 받고 제정 전범자들의 명복을 빌며 그것을 정치인들의 엉뚱한 《도리》, 《의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지난 시기 일제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강요당한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아픈 상처에 칼질을 해대는 야만적인 처사이다. 아니 전체 아시아인민들에 대한 참살수 없는 모독이고 인류광심에 대한 우롱이다.

일본당국자들이 벌이는 야스쿠니신자 참배놀음은 사회를 군국화에도 몰아가고 있다. 전후 수십년간 가명을 쓰고 숨어살던 도조 히메기의 손녀가 공공연히 참의원선거에 출마하려고 치마바람을 일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기발》

나이지리아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조선로동당장건 68쪽에 즈음하여 17일 나이지리아주세사사 연구원인 나이지리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기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은 노래 《눈이 날라 우리의 당기》를 즐겨부른다. 노래는 조선로동당이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당기를 휘날리며 혁명의 먼길을 헤쳐왔음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은 창건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인민을 적극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였다. 제반 민주개혁들을 실시함으로써 인민대중을 생산단위와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히 내세웠으며 무료교육, 무상치료를 비롯한 사회주의적시책들을 실시

하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사회제도도 반석같이 다져놓았다.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과거 착취와 통치의 대상으로만 되어 있던 인민대중이 사회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역사의 새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새 정치가 펼쳐지게 되었다.

같은 김정일명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조선로동당의 리더를 계승하시어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하여 부추리는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겠다고 하면서 그이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조선로동당은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자기의 색조를 한점도 흐리지

않았다.

지난 세기말 여러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붉은기가 내리워지고 인민의 운명이 내버려졌을 때 조선로동당은 더욱 높이 휘날렸다.

장장 수십년간 인민의 운명을 지켜온 조선로동당은 오늘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일명도자에 의하여 더욱 높이 휘날리고 있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사회주의부여영화를 마련해주기 위한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을 진두에서 이끌고계신다.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휘날리며 휘황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려는 것은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그 신념을 담은 노래가 조선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고 있다.

중국의 TV방송 《2013년 조선기행》을 방영

중국 홍콩 봉황위성TV방송이 20일 편성된 《2013년 조선기행》을 방영하였다.

방송은 지난 7월 27일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밑에 선군시대의 대가님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김정은명도자께서 리원조부주석과 함께 개관식에 참석하

시었다.

기념관홀에 정중히 모신 김일성주석의 립상을 우러르며 참가자들은 김정은명도자 주석과 똑 같은분시라는 것을 절감하였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새 세대명도자로서의 품모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각께 사람들은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송은 오랜 력사를 가진 수도 평양이 현대적인 도시로 더욱 훌륭히 꾸러진데 대하여서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신화적인 인물로 전해지던 단군을 우리 민족의 원시조로 찾아주시고 단군릉을 훌륭히 개건하도록 하신 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또한 평양에서 진행될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경축 조중 두 나라 로병들의 친선환우대결면들도 편집하였다.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 보도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조선반도군국주의화 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해 책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담화를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 23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파르통신, 《야프리오프》를 비롯한 각 신문

기사들이 보도하였다.

미국이 조선반도군국주의화 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해 책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담화를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 23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파르통신, 《야프리오프》를 비롯한 각 신문

기사들이 보도하였다.

미국이 조선반도군국주의화 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해 책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담화를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 23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파르통신, 《야프리오프》를 비롯한 각 신문

기사들이 보도하였다.

미국이 조선반도군국주의화 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해 책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담화를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 23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파르통신, 《야프리오프》를 비롯한 각 신문

조선의 자랑 문수물놀이장

월남의 인터넷통신이 소개

월남의 인터넷통신 브라이언 엑스프레스가 18일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집을 모시고 문수물놀이장을 소개하였다.

물놀이장은 2011년에 착공되어 10만 9000㎡에 달하는 방대한 부지에 건설된 문수물놀이

장은 현대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야외물놀이장과 실내물놀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문수물놀이장건설을 여러차례 찾아서 건설을 다그쳐 끝날때 대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건설을 맡아 진행하였다.

문수물놀이장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 물놀이장으로서 조선인민의 자랑이다.

최근 조선에서는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연이어 일떠서고 있다. 머지않아 마시멜스키장도 완공될 것이다.

통신은 문수물놀이장을 소개하는 사진들도 함께 편집하였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

국제사회계가 강력히 주장

국제사회계는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때 우리 정부공화국의 요구를 받아들일것을 강력히 주장해나서고 있다.

내탈신문 《노아 브르카》는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오늘 조선반도의 정세는 첨예한 대결속에 다치면 필적할 한 위위계선에 도달하였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압살책동으로 대담적인 군사연습에 근원이다.

북남사이의 군사적충돌과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 거듭되는 정치적도발행동 등으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검은구름은 거시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공산주의청년전선은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과 남조선피리당국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들은 두말할것없이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세계평화에 대한 진짜위협으로 되고 있다.

조선은 오래전부터 미국에 평화협정체결을 제안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아직까지 남조선에 저들의 침략부력을 주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 보도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조선반도군국주의화 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해 책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담화를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 23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파르통신, 《야프리오프》를 비롯한 각 신문

광업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

남아프리카대륙명 차코프 게틀레이올레키가 주마가 22일 립포주에서 진행된 광산작업에서 연설하면서 광업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나라의 광업분야가 경제발전의 기초로서 일차적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영웅들을 우대할데 대해 강조

케니아대통령 우후루 케냐티가 21일 연설하면서 영웅들을 우대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영웅들이 국가건설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인정하고 평가해 주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할것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한 노력

중국에서

중국에서 재정부의 금융정책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유색금융연합회는 지난해 국내에서 회수한 파알부니움, 파드, 파이언, 파연 660만을 재생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2년째에 비해 5.09%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나라에서는 2002-2012년 기간에 파유색금융을 회수재생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유색금융생산에 대한 투자액 1억 3900만, 물 123억㎡를 절약했다고 한다.

집중하게 된다 한다. 23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르완다에서

르완다정부가 나라의 정보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밧봉산에 밧봉산정착을 위한 밧봉산정착을 촉진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나라에서는 곧 범아프리카정보기술회의를 주최할것을 계획하고 있다.

수단에서

수단에서 소아마비예방사업에 힘을 넣고 있다. 11월 5일부터 남부코르도판, 블루 나일주에서 소아마비예방사업이 시작되게 된다. 예방접종을 위한 준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야스쿠니신자참배는 절대로 일본 내정이 아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언명

중국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이 최근 일본에서 야스쿠니신자에 대한 징벌의 참배를 반대하는 것은 일본내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된다는 꾀변이 흘러나온 것과 관련하여 이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로씨야 국가회의 《군인영광의 날》을 개칭

로씨야 국가회의 《군인영광의 날》을 개칭

로씨야 국가회의 《군인영광의 날》(1944년)로 부르던 《1월 27일은 소련군인들이 메닌그라드를 파쇼도이들

심각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심각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최근 중국의 대기오염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베이징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미소립상태의 물질인 PM2.5의 농도가 높은 내륙인 개개 때때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여러 나라들 협조

여러 나라들 협조

같은 날 인도네시아와 쓰리비아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할데 대해 합의하였다.

김바브웨에서

김바브웨에서

김바브웨정부가 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채택하였다. 계획은 2018년까지 경제성장률을 현재의 3.4%로부터 9.9%로 늘일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 기간 식량안정과 빈곤청산, 하부구조건설과 사회봉사시설건설 등 경제과제들에 힘을

탄산산과 철이온으로 새로운 나노피복 개발

탄산산과 철이온으로 새로운 나노피복 개발

어느 한 나라의 연구자들이 탄산산과 철이온으로 새로운 나노피복을 개발하였다.

두께를 수nm로 조절할수 있는 이 나노피복은 석양분야에서 교감재료로 그리고 보료양복으로 유용할수 있으며 원가도 낮고 안전하다고 한다.

화산분출을 예방하는 방법 연구

화산분출을 예방하는 방법 연구

로씨야의 모스크바국립종합대학 지질학부의 기계대학의 연구자들이 최근 화산의 활동도를 평가하는 수학적방법을 개발하였다. 연구자들은 암장의 화학적구성자료를 비교하여 암장이 올라오는 통로의 규모와 분출의 힘과 속도를 알아내었다.

이런 성과는 화산활동을 정확히 예측하는데서 한걸음 전진한 것으로 된다고 한다.

도이칠란드 미국의 정략행위에 항의

도이칠란드 미국의 정략행위에 항의

도이칠란드수상 메르켈이 23일 미국집권자와의 전화대화에서 미국의 정략행위에 격분을 표시하였다.

미국이 도이칠란드수상의 이동통신수단을 감시해온 사실이 폭로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러한 행위는 용납될수 없는 것이며 동맹국인 두 나라사이의 신뢰협력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죄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도이칠

국제사격스포츠리맹 새로운 경기규정 발표

국제사격스포츠리맹 새로운 경기규정 발표

국제사격스포츠리맹이 최근 달리기를 사격과 결합시킨 새로운 대종목경기규정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경기종목으로 되는 파년달리기는 중장거리달리기를 보충사격과 결합시킨 대종목종목으로서 2차례의 국제사격경기대회에서 이미 시합적으로 진행되었다. 육체적능력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달리기와 사

미국의 국가채무 17조US\$ 초과

미국의 국가채무 17조US\$ 초과

미국에서 국가채무액이 17조US\$ 계선을 넘어섰다.

최근 《로씨야의 소리》방송은 16조 7000억US\$에 달하였던 미국의 국가채무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채무한도를 높이기로 한 후 하루동안만에 3280억US\$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의 국가채무 17조US\$ 초과

중국의 국가채무 17조US\$ 초과

중국의 국가채무액이 17조US\$ 계선을 넘어섰다.

최근 《로씨야의 소리》방송은 16조 7000억US\$에 달하였던 미국의 국가채무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채무한도를 높이기로 한 후 하루동안만에 3280억US\$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의 국가채무 17조US\$ 초과

중국의 국가채무 17조US\$ 초과

중국의 국가채무액이 17조US\$ 계선을 넘어섰다.

최근 《로씨야의 소리》방송은 16조 7000억US\$에 달하였던 미국의 국가채무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채무한도를 높이기로 한 후 하루동안만에 3280억US\$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의 국가채무 17조US\$ 초과

중국의 국가채무 17조US\$ 초과

중국의 국가채무액이 17조US\$ 계선을 넘어섰다.

최근 《로씨야의 소리》방송은 16조 7000억US\$에 달하였던 미국의 국가채무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채무한도를 높이기로 한 후 하루동안만에 3280억US\$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의 국가채무 17조US\$ 초과

중국의 국가채무 17조US\$ 초과

중국의 국가채무액이 17조US\$ 계선을 넘어섰다.

최근 《로씨야의 소리》방송은 16조 7000억US\$에 달하였던 미국의 국가채무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채무한도를 높이기로 한 후 하루동안만에 3280억US\$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